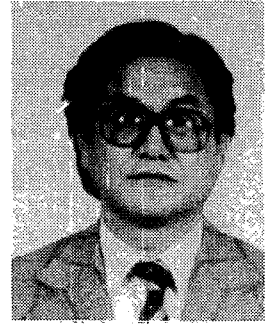




푸른 도나우강과

환경권



윤 현

〈國際韓國赦免委員會·委員長〉

유럽에서 대표적인 강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서슴없이 도나우 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독일어로 「도나우」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뉴브」라고 하는 이 강은 그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장대하다. 독일 서부의 「도나우에신겐」으로 부터 더 들어간 「슈발츠바르트」에서 시작된 이 도나우 강은 동행(東行)하여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영내를 흐른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부근을 지나서 한참 흘러가다가, 체코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이 되고, 다시 헝가리 영내로 들어간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한복판을 유유히 흐른다음, 이번에는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지나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국경이 된다. 루마니아 영내를 북상한끝에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도나우 강은 루마니아와 소련의 국경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보니 도나우 강은 8개국을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는 셈이다. 도나우 강의 전장(全長)은 3천킬로 미터로 저 유명한 라인강의 2배를 넘는다. 그 수량도 엄청나게 많아서 독일의 3대강이라고 하는 라인강, 엘베강, 베젤강의 수량을 합친 정도라고 하니, 도나우강이 얼마나 큰 강인가를 알 수가 있다.

유럽에는 “도나우강이 흐르는 곳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는 말이 있다. 「슈바르츠발트」

의 독일민요, 「리롤」지방의 요들, 「빈」의 왈츠 음악, 「보헤미아」지방의 슬라브무곡, 헝가리의 집시음악,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콜로무곡등이 그 대표적인 음악들이다. 우리 아시아인이 도나우강을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음악 때문이다. 우리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명곡 「도나우강의 잔물결」을 통해서 도나우강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붉은 노을은 달빛을 가리고
도화 강변에 나부껴 있는 곳

흐르는 물결 꽃바다 이루고
지저귀는 새 여기가 도나우 강

어기여차 배를 저어
달 그림자 깨어지고
은파연월 일엽편주 등실 떠나간다.

그런데 이처럼 장황하게 도나우 강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은 도나우강이 근래 크게 오염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던 것이다. 우리가 「도나우 강의 잔물결」을 통해 얻게 된 이미지는 「끝없이 맑고 푸른 도나우 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방문하고 돌아온 서방 관광객들은 시냇물을 관

통하는 도나우 강이 푸르기는 커녕 썩빛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폐수로 오염되고 만 것이다. 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연안 각국은 「국제도나우위원회」를 만들고 오염방지에 나서고 있다. 이 위원회의 사무국은 오스트리아의 「빈」에 자리잡고 있으며, 각국의 관할 구역을 할당하여 오염방지 사업을 벌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장대한 강이고, 또 자그만치 8개국을 관류하기 때문에 이렇다할 성과가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국제도나우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9개국중 서독,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산국가들은 공해가 자본주의국가에만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소련대사관은 「오늘의 소련」이라는 화보를 월 2회씩 널리 배부하고 있는데,

1960년대에 간행된 「오늘의 소련」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들이 있다. 「최근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해 때문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자본에 의한 이윤추구와 무정부적인 생산경쟁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고도 경제성장정책이 공해의 원흉인 것이다.」 「우리 사회주의 국가들에는 공해가 없다. 그것은 공장 하나를 건설할 때에도 환경보전과 주민의 건강유지를 위해 만반의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우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상투적인 선전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도나우 강의 오염으로 여지없이 폭로된 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파괴는 사회체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회현상으로, 환경보전은 인류 전체의 공동과제임을 알 수가 있다.

1970년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사회과학평의회 주최 「공해심포지움」은 환경권선언이라

는 문서를 채택하였는데,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우리는 다음의 권리가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서 법체계 안에 확립하기를 요구한다. 그 권리란 건강 복지에 해를 주는 요인으로 침해받지 않는 환경을 누릴 권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함한 자연자원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자연자원은 오늘의 세대가 미래의 세대에게 남겨 줄 유산인 것이다」 이 선언은 환경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세인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고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환경은 본질상 전일적이며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파괴는 물질 파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의 파탄이나 심리적 악영향, 또는 문화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간의 환경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마침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제 12조에서 인간은 누구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환경위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환경권이 건강권과의 관련에서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공인된 것이다. 국제인권협약의 이 규정이 「환경권선언」마땅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함한 자연자원을 누릴 권리까지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나우 강이 푸르름을 되찾을 때 연안 국민들의 마음을 순화하여 유럽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하게 하고,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